

5월 고용률 역대 최고지만...청년·제조업 '고용 한파' 지속

통계청, '2023 5월 고용동향' 발표 취업자 35만1천명 ↑...두달째 둔화 OECD 고용률 69.9%...역대 최고치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명 이상 늘었지만 두 달 연속 증가폭은 줄었다.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보이며 고용시장 안정세를 이어갔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층 일자리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일자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연령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제조업 분야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하고, 건설업 취업자도 급감하는 등 제조업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도 분명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3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1000명(1.2%)

늘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27개월 연속 늘었지만 증가 규모는 전월(35만4000명)보다 소폭 둔화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6월(84만1000명)부터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12월(50만9000명), 올해 1월(41만1000명), 2월(31만2000명)까지 둔화했다. 이어 3월(46만9000명) 확대됐으나 4월(35만4000명)부터 다시 축소됐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9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2만8000명 감소했다. 30대와 50대에서 도 각각 7만명, 4만9000명 증가했지만 20대

에서 6만3000명, 40대에서 4만8000명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1000명)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세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9만 9000명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고용률은 47.6%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6000명·6.0%), 숙박 및 음식점업(12만8000명·5.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1000명·8.7%)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6만6000명(-3.0%) 쪼그라들며 2017년 11월(-7만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제조업(-3만 9000명·-0.9%)도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9만1000명(3.8%)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5만8000명(-3.3%), 13만3000명(-10.9%)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3월(-17만2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는 5만3000명(3.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1000명(0.9%) 증가했으나 무급가족 종사자는 4만4000명(-4.3%)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를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45만8000명으로 21만7000명(1.0%) 증가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8만8000명으로 14만명(2.4%)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5%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오른 69.9%로 집계됐다.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7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2000명(-11.5%) 감소했다. 실업자 규모는 2008년 5월(76만1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1999년

관련 통계 개편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7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5000명(-0.7%) 감소하며 2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17만4000명·20.1%)과 20대(3만6000명·11.1%)를 중심으로 18만1000명(8.8%) 늘었다. 서울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취업에서 탈락하면 다시 취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60세 이상은 건강상의 이유로 쉬고 싶다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향후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관광,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대면업 취업자 증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작년 고용시장 이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수출 부진과 높은 물가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변용일기자

한샘홈케어 최대 30% 할인 프로모션 진행

'썸머 완벽 준비'·'사전 예약' 등 이벤트 준비



한샘은 다음달 31일까지 최대 30%에 달하는 '한샘홈케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샘홈케어는 한샘의 토털 홈케어 서비스로 ▲주방 ▲욕실 ▲인테리어 리폼 ▲가구 ▲가전 ▲홈클리닝 ▲방역 및 살균 ▲전기 구동 등 총 8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한샘홈케어는 여름철 인기 서비스를 모아 '썸머 완벽 준비', '사전 예약' 등의 이벤트를 준

비했다. 여름철 주문량이 가장 많은 에어컨 케어 상품은 약 25% 할인되며, 사전 예약 고객은 세탁기·주방후드·공기청정기 등의 케어 서비스를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한샘홈케어 전용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한샘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케어 마스터'가 고객 주거 공간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한다. 부엌 가구의 음식물 오염, 곰팡이, 찌든 때를 제거하고 코팅 시공으로 광택을 되살려주는 '키친 케어', 욕실기기를 살균 세척하고 코팅 시공하는 '욕실 코팅 패키지' 등이 준비돼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을 통해 기존 방충망을 미세먼지, 해충 등의 차단 효과가 높은 한샘방충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케어 서비스를 통해 소파와 매트리스 등 직접 청소하기 어려운 거실·침실 가구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서선욱기자

"1700만원 부터" 하나투어 제우스월드, 럭셔리 고객층 공략

디오폰·임블던 관람 포함한 투어텔 인기



하나투어의 하이엔드 맞춤형 여행 브랜드 '제우스월드'가 특별한 경험을 위한 이색 럭셔리 상품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제우스월드에는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502% 증가했다. 해외여행

증가세와 더불어 하이엔드 여행시장도 빠르게 회복하면서 럭셔리 여행 상품을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동부 9월은 캐나다 동부지역 미식과 문화를 경험하는 하이엔드 동부 일주 상품이

다. 페어몬트 오타와-몬트리올-퀘벡 프롱트락 랜드마크 호텔에서 투숙하고, 와이너리 투어와 몬트리올 재즈를 경험할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1800만원부터 예약 가능하다.

이색 스테이 상품인 뉴질랜드 남섬 9일은 지상 10m 높이에 지어진 '하푸쿠 루트&트리 하우스'에서 산과 태평양 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지역 특산물에 이용한 고품질 음식을 제공하는 스페셜 다이닝과 온천·고대 관광 크루즈 등 일정 구성으로 1750만원부터다.

이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 대회 '디 오픈'을 관람하고 라운딩 하는 상품과 권위 있는 테니스 토너먼트 '임블던'을 관람할 수 있는 투어텔도 판매 중이다.

하나투어 제우스월드 관계자는 "경험 중심의 여행 트렌드에 맞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색 상품을 기획했다"며 "지속적으로 제우스월드만의 차별화된 이색 여행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생산, 분기 기준 9년만에 최저

는 분기 기준으로 2014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생산량이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 스마트폰이 전시되어 있다.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

이 2억5000만 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생산량이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 스마트폰이 전시되어 있다.

중소기업 10곳중 7곳 "올해 신규채용 예정"...평균 6.6명

평균 6.6명 채용 계획...'생산직' 인력수요 많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도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1.0%가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으며 평균 6.6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참 관측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중소기업 10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채용계획이 있는 직무로는 '생산직' 비중이 44.7%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생산직 채용계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시 37.6%

가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별도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41.4%로 높게 집계됐다.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채용 규모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62.9%였으며, 채용규모를 확대한다는 응답은 27.4%를 차지했다. 채용 규모를 축소한다는 응답은 9.7%에 그쳤다.

올해 인력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에서는 55.7%의 중소기업이 "인력 상황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인원 대비 재직인원 비율은 평균 90.9%로 전년 대비 8%p 증가했으며, 필요인원의 '100%' 이상을 채용한 기

업 역시 49.9%로 지난해 29.3%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이슈인 채용공고 상 급여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근로조건에 사전 동의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65.6%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령자 채용에 대해서는 고령자 채용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63.0%, '있다'는 의견이 37.0%로 조사됐다. 고령자 활용이 부정적인 이유로는 '낮은 생산성', '높은 인건비', '조직 내 세대 갈등 발생 가능' 등이 꼽혔다.

최이슬기자

"찍힘·긱힘·오염에 강하다"...이건마루 '세라 베이직' 출시

공동·다세대 주택서 사용 고려해 제작

이건산업의 고품질 친환경 마루 브랜드 이 건마루는 '세라 베이직' 라인을 새롭게 선보이며 강마루 라인업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건 산업은 이번 강마루 라인업 강화로 접근성을 크게 높여 소비자는 물론 B2B(기업간 거래) 고객과의 접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세라 베이직은 59타입부터 84타입까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규모의 공동·다세대 주택에서 사용을 고려해 기획된 제품이다. 두께 6.2T X 폭 115 X 길이 800(mm)의 규격을 갖췄다.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시험에서 0.3mg/L 이

하의 최우수 'Super E0' 등급을 획득, 유해 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표면에 '고강도 압축 멜라민수지(HPM)'를 입혀 마루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찍힘과 긱힘, 오염 등 각종 손상에 강한 내구성을 갖췄다. 청소와 유지 관리도 쉽다. 또 고강도 HPM(고압 멜라민수지) 위에 3D 엠보 기술을 더해 원목의 무늬결과 입체적인 질감을 실감 나게 담아냈다.

세라 베이직은 베이직 슈가·밀크·크림·바닐라·버터·오크·티크·쿠키 색상을 제공해 취향



에 맞춰 공간을 완성할 수 있다.

이건산업 관계자는 "세라 베이직은 마루가 갖춰야 할 기본에 충실한 강마루"라고 말했다. 뉴시스